

‘치료적’ 독자상담으로서의 독서치료와 사서의 역할

Bibliotherapy as an ‘Therapeutic’ Enforced Readers’ Advisory and the Roles of a Librarian as a Therapist

이 기 명(Kee-Myung Lee)*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치료적 독자상담의 개념 |
| II. 독서치료와 독자상담의 관계 | 2. 치료적 독자상담과 ‘정보요구’ 이론 |
| 1. 독서치료와 독자상담의 뿌리 | 3. 치료적 독자상담자의 역할 |
| 2. 독서치료와 ‘강화된’ 독자상담 | IV. 결 론 |
| III. ‘치료적’ 독자상담과 사서의 역할 | |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독서치료의 지적 기반을 전통적인 도서관서비스인 독자상담에 두고, 독자상담 영역에서 그동안 활용해온 이론과 방법에 근거하여 독서치료를 우리 도서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강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 선진국인 미국의 도서관 현장을 사례로 하여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와의 논리적 연계성을 검토해보고, 독자상담의 연장선에서 치료적 독자상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치료적 독자상담의 실천을 위해 사서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쾰다우(Kuhlthau)가 제시한 중재역할(zone of intervention) 모델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키워드: 참고봉사, 참고서비스, 정보봉사, 정보서비스, 이용자서비스, 독자상담, 독서치료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locate the logical basis to apply bibliotherapy as a library service in Korean libraries. To the end, investigated and discussed are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bibliotherapy and RAS(readers' advisory service), and the theoretical base and practical experiences that enabled bibliotherapy to be practical in the U.S. library community. This article introduces a concept of 'therapeutic' RAS as a similar concept to 'developmental' bibliotherapy, and suggests the roles of a librarian as a therapist, based on the "Zones of Intervention" by Carol Kuhlthau.

Keywords: Reference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Readers' Advisory Service, Bibliotherapy

* 울산남부도서관 사서(ki2306@hanmail.net)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11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8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28일

I. 서론

도서관에서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서비스에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최근 정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또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앞장서 개척해온 일부 사서들의 실험정신과 의욕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즉, 도서관 소장 자료의 물리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자료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고급 단계의 이용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서들의 열정과 노력이 빚어낸 성과이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서들의 의욕이 합쳐지면서 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호응에 힘입어 독서치료를 도서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나서는 도서관들의 대부분이 기획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획을 맡은 많은 사서들의 대부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막막함과 선불리 나섰다가 낭패를 보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서들이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명료하다. 우리 도서관계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수 사서들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독서치료를 스스로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 오다 보니, 개인적인 체험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서들에게 있어 독서치료는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데다가,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도서관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 사서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망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일각에서는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도서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려면 다른 영역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이론 기반과 실무 기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펴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도서관에서 사서가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던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의 이론과 실무 경험을 독서치료의 지적 근거와 실무 토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제안의 근거로 도서관 선진국에서 독서치료가 일종의 '특화된' 서비스로 사서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자상담을 통해 축적된 '경험적 지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들은 우리 도서관계가 독서치료를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려면, 도서관 선진국에서처럼 '독자상담'과 연계하여 독서치료의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

1) 이계환, "한국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5-29.

이번 연구는, 그러한 기존 주장을 참조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의 이론적 근거를 전통적인 독자상담 이론과 방법에서 찾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이론적 연계성을 밝혀내고자 하며, 더불어 치료적 독자상담의 실천을 위해 사서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쾨르(Kuhlthau)가 제시한 중재역할(zone of intervention) 모델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II. 독서치료와 독자상담의 관계

1. 독서치료와 독자상담의 뿌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치료는 책을 매개로 하여 도서관이용자의 정서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독서치료는 특히 도서관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단순한 ‘정보제공(information)’ 기능과는 달리 도서관이용자의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전문적인 인적 서비스이다.²⁾ 이를 위해 독서치료는 ① 면담을 통한 정서문제의 본질 파악, ② 적합한 독서 자료의 제공 및 독서활동 독려, 그리고 ③ 피드백을 통한 다음 단계의 독서자료 제공 및 지속적인 독서활동 독려 등의 세부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독서치료에서는 이용자와의 면담, 자료의 제공,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자료의 지속적인 제공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독서치료는 사서에 의한 참고봉사 중에서 특히 상담안내(guidance)의 범주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다.³⁾

주지하다시피 참고봉사의 주요 기능 중에서 상담안내의 범주에서 사서가 제공하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이었다. 독자상담은 독서치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독서 자료를 사서가 개별적으로 선정해 주는 인적 지원 활동이 서비스의 중심을 이룬다.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격적인 독자상담서비스는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 중에 베스트셀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질의가 많아지자 그에 대해 조언하거나 적합한 자료로 안내하기 위한 면대면 서비스를 시행한 것

2) 후에 상술하겠지만, 이때의 치료적인 활동이라 함은 심각한 심리질환에 대한 임상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미한 정서문제를 완화하고 극복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치료는 참고봉사의 3대 기능, 즉, 정보제공(information), 상담안내(guidance), 그리고 이용교섭(instruction) 중에서 상담안내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전개되어 왔다. Charles A. Bunge, "A Brief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Reference Services in American Libraries," In : Sul H. Lee, ed., *Reference Services : A Perspective*(An Arbor : The Pierian Press, 1983), p.2.

4) *Ibid.*, p.7.

이 계기가 되었다. 즉, 특정 사실 위주의 단답식 답변을 제공하던 기존의 참고봉사와 달리, 사서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독서와 관련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독서 자료로 안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자상담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⁵⁾

1930~1940년대를 거치면서 독자상담서비스는 거의 모든 도시의 공공도서관으로 확산되었으며, 1950년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별적인 독자상담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독자상담서비스는 성장의 탄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공공도서관 정책의 초점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소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고에 주어져면서 빈곤층, 노인, 환자, 장애인, 무학자 등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독학지도, 독서치료 등이 확산되는 반면에 일반 이용자를 위한 전통적 방식의 독자상담서비스는 크게 위축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⁶⁾ 그러다가 1970년대의 쇠퇴기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개별 이용자를 위한 직접적인 독자상담서비스는 사라지고 상황별 표준독서목록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편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독자상담서비스는 전반적인 쇠락을 경험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이용자에게 독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사서의 고유 기능이 온전히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60년대에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소수집단(장애인, 환자, 재소자 등)을 위한 보다 '강화된' 독자상담서비스가 강조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강화된 서비스는 발달적 독서치료로 이어져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 정착시키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독자상담과 독서치료는 서로 근접하여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공존관계의 지적 공통성을 강조하는 일부 문헌정보학자들은 독서치료를 독자상담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가령, 몬로(Monroe)와 같은 학자는 독서치료 역시 '독자상담'과 마찬가지로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독서)자료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서치료를 독자상담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⁷⁾

물론, 몬로 등과는 다른 견해를 갖는 학자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미첼 카말리(Mitchell-Kamalie)는 “독자상담은 장시간 기차를 타야 할 때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가 제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5) 독자상담의 공식적인 출범은 1923년에 미국의 시카고 공공도서관에서 참고봉사 부서와는 별도로 독자상담 부서를 설치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여러 도서관에서 개별 독자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양질의 독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에 맞는 독서계획을 마련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Sharon L. Baker, "Laying a Firm Foundation : Administrative Support for Readers' Advisory Service," In : Kathleen de la Pena McCook Gary O. Rolstad, ed. *Develop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 Concepts and Commitments*(Neal-Schuman Publishers, inc., 1993), p.13.

6) Charles A. Bunge, *op. cit.*, p.7.

7) Margaret E. Monroe, "Reading Guidance as a Basic Library Services," In : Margaret E. Monroe, ed. *Reading Guidance and Bibliotherapy in Public, Hospital and Institution Libraries*(Madison : Library School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1971), pp.1-11.

하는 독서치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자 중에서는 박금희의 주장이 돋보이는데, 그녀는 “독자상담과 독서치료가 면대면 서비스로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개별 이용자에게 맞춤서비스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독서치료는 위기의 순간에 처한 이용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독자상담보다 그 영역이 더 깊고 전문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⁸⁾

이러한 견해 차이는 아마도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목적과 방법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듯 보인다.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이제환이 적절히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독자상담의 목적이 적합한 책의 선택을 위해 독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있다면, 독서치료의 목적은 적합한 책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기 때문”이라는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⁹⁾ 더불어 처음에는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발전하였던 독자상담이 1980년대 이후 픽션 중심의 자료를 그것도 표준독서목록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자, 독자상담의 가벼움과 독서치료의 진중함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쌍방 간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사서들의 역량이 도서관에서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를 가능하게 만든 기반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독자상담이 특수 집단(가령, 정서적 문제를 가진 도서관이용자)을 위한 독서치료로 연계되었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¹⁰⁾

2. 독서치료와 ‘강화된’ 독자상담

2011년 현재, 독자상담서비스가 픽션을 위주로 한 오락적인 독서목록을 제공하는데 치우쳐있긴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상담의 뿌리는 진중한 참고봉사의 기능에 있었다. 즉, 도서관 이용자의 건강한 독서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한 세심한 상담안내(guidance)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

-
- 8) 박금희,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p.30.
- 9) 이제환, 전개서, p.3.
- 10)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독자상담은 사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성인 교육부서와 독자 상담국이 1923년 밀워키 공공 도서관에서 만들어졌다. 1924년에 뉴욕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임이었던 Franklin Hopper가 독자 상담역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Jennie M. Flexner는 뉴욕 공공도서관의 초대 독자 상담가로 초빙된다. 1930년대에는 독자상담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의 성인교육부서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1940년대 성인교육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예로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한 ‘The Great Book Program’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치료적인 책 서비스와 함께 이러한 책에 근거한 토의프로그램을 독서치료라고 불렀다(한복희, 독서클리닉의 이론과 실제(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pp.175-179). 또한 Hynes and Hynes-Berry는 정서적 성장이나 개인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적절한 책을 추천해주는 것도 독서치료서비스의 한 형태간주하면서, 이런 형태의 독서치료가 1920년대 사서들이 잠정적이거나 치료적 요구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책을 탐색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 전통적 사서의 역할인 독자상담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Hynes and Hynes-Berry, *Bibliotherapy : The Interactive Process : A Handbook*(Boulder, Colo. : Westview Press, 1986), p.10).

다.11) 주지하다시피 독자들은 오락용 혹은 취미용 독서를 위해서만 도서관을 찾지는 않는다. 여가 활동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 나아가 실생활에서 봉착하는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의 독자 상담서비스의 초점이 비록 여가적 요구에 집중되어 있다하더라도, 도서관이용자의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안내 기능을 온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12) 이러한 도서관이용자의 일상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심층적’ 독자상담을 루야링(Ya-Ling Lu)은 여가활동 중심의 독자상담과 구별하여 ‘강화된(enhanced)’ 독자상담으로 호칭하고 있다.13)

루야링은 특히 ‘강화된’ 독자상담서비스가 필요한 대표적인 문제로 일상에서 겪는 정서불안을 들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미국의 도서관계에서는 비록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서비스는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형태의 ‘강화된’ 독자상담서비스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ALA에서는 미국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정서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책이나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는 정서문제와 관련된 상황별 도서목록을 제공하거나 실물 장서를 서가에 별치하여 Self-Help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픽션류의 독서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정서불안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독서 치료라고 칭하지만 않을 뿐이다. 치료(therapy)라는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임상성’이 주는 부담감이 너무도 크기에 그들은 독서치료 대신에 ‘강화된’ 독자상담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14)

-
- 11) 이에 대해 독자상담의 선구자인 프렉스너(Flexn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독자상담을 통해 독서에 관한 세세한 상담을 하기위해서는 사람들로 붐비는 대출데스크나 자료실보다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세세히 알아보려면 구체적으로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책의 리스트를 제공하려면 그들의 요구(needs)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꾸준히 독서하는데 있어 안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들이 무엇에 흥미를 가졌으며,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으며, 과거에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William I. Fletcher, "Public Libraries and the Young," In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 Their History, Condition and Management*(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Education, 1876), p.8).
- 12) Margaret E. Monroe, "Reading Guidance as a Basic Library Services," in *Reading Guidance and Bibliotherapy in Public, Hospital and Institution Libraries*, Margaret E. Monroe, ed. (Madison : Library School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1971), pp.1-11. ; Beth Doll and Carol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97), p.44. ; Brian W. Sturm,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 Helping or Healing?"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 Library Sciences*, Vol.41, No.2(2003), pp.171-179.
- 13) Ya-Ling Lu, *How children's Librarians Help Children Cope with Daily Life : An Enhanced Readers' Advisory Service*(Ph. 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5), p.10.
- 14)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bibliotherapy라는 용어 대신에 bibliocounseling, bibliodiagnostics, biblioprohylaxis, biblioguidance, library therapeutics, tutorial group therapy, literatherapy, counselor librarianship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잘 드러나 있다.

독서치료라는 용어의 사용을 둘러싼 사서들의 부담감은 우리 도서관계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도서관계의 경우 특히 보편적인 ‘참고봉사’의 뿌리조차 미약하다보니 ‘과도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문헌정보학계의 일각에서는 독서치료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면서 용어 사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해, 도서관서비스로서 독서치료의 적용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서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도서관계에서는 독서치료를 독자상담의 연장선에서 보고자 하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비록 간접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독서치료서비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치료적’ 측면의 독자상담을 어느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¹⁶⁾ 그들의 신중한 행보는 독서치료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려는 우리의 성급한 행보와 너무도 대비되기에 “부작용에 봉착하기 전에 이론적 근거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도서관계에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이론적 연구 가운데 우리 도서관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독서치료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참조할만한 연구는 없는 것일까? 지금부터는 그러한 연구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먼저 관련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분류해 놓은 독서치료의 다양한 유형과 전통적인 독자상담 사이의 관계를 세밀히 살펴보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 독서치료를 ‘강화된’ 형태의 독자상담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고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정서적 문제의 완화를 위해 독서치료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파르텍(Pardeck)의 견해에 주목해보자. 그는 독서치료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환경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성장통을 앓고 있는 사람’ 등 정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서치료를 일상적 정서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⁷⁾ 파르텍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서치료를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임상적 독서치료’와 ‘발달적 독서치료’로 구분하고 있는 랙(Lack)은 적극적인 심리치료 행위가 수반되는 임상적 독서치료와 달리 발달적 독서치료는 도서관 사서들이 오래 동안 수행해온 일상적 정서문제의 완화를 위한 독자상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사서들은 발달적 독서치료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독서치료를 ‘반응적 독서치료’와 ‘상호적 독서치료’로 구분하고 있는 글래이딩(Gladding) 또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적 독서치료는 사서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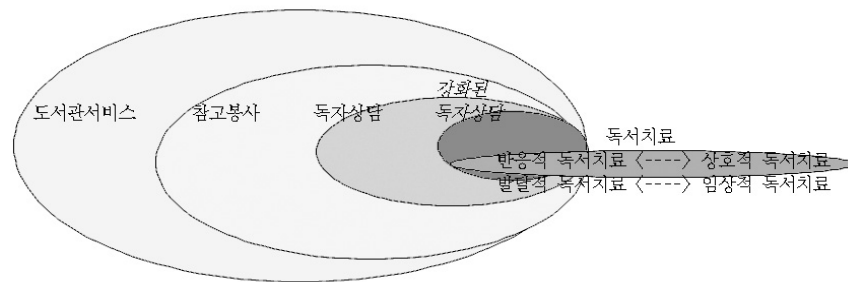
15) 이제환, 전제논문, pp.5-29.

16) Ya-Ling Lu, “Coping Assistance vs Readers’ Advisory : Are They the Same Animal?” *Children & Librarie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Vol.6, No.1(Spring 2008), pp.15-22.

17) Jean A. Pardeck and John T. Pardeck, *Bibliotherapy-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New York : Gordon & Breach Science, 1993), pp.28-31.

준 역량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⁸⁾

이처럼 심리치료 전문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임상적’ 혹은 ‘상호적’ 독서치료와는 달리 ‘발달적’ 혹은 ‘반응적’ 독서치료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봉착하게 되는 정서문제나 적응문제를 완화하거나 정신건강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책을 매개로 사용하다는 점에서 사서들이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독자상담 업무의 ‘강화된’ 혹은 ‘심화된’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1>인데, <그림 1>은 도서관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독서치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참고봉사·독자상담·강화된 독자상담·발달적(혹은 반응적) 독서치료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참고봉사의 상담안내 기능의 일환으로 양질의 독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독자상담이 수행되어 왔으며, 독자상담 활동 가운데 일상에서 부딪히는 제반 문제, 특히 정서문제를 완화 혹은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화된 형태의 독자상담이 수행되어 왔고, 이렇듯 강화된 독자상담은 발달적 혹은 반응적 독서치료의 초기 단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도서관서비스에서 독서치료를 어떻게 배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다.



<그림 1> 도서관서비스에서 독서치료의 위치

Ⅲ. ‘치료적’ 독자상담과 사서의 역할

1. ‘치료적’ 독자상담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강화된’ 독자상담과 구분하여 픽션 중심의 독서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행해지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전통적’ 독자상담으로 호칭하기로 한다. 또한, 강화된 독자상담에서 다루어지는

18) Beth Doll and Carol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Librarie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97), p.6.

일상적인 문제 중에서 정서문제만의 완화 혹은 해결을 위해 행해지는 서비스를 ‘치료적’ 독자상담이라 호칭하기로 한다. 이처럼 치료적 독자상담은 앞서 언급한 발달적 혹은 반응적 독서치료를 독자상담의 관점에서 달리 표현해 놓은 것이다. 전통적 독자상담, 강화된 독자상담, 치료적 독자상담은 참고봉사의 상담안내(guidance) 범주 내에서 수행되어온 서비스인 만큼 그 형식과 과정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독서욕구의 충족’, ‘일상적 문제의 완화’,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서비스의 목적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들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하는 세부 사항에서는 고려할만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차이점을 파악하는 작업은 독자상담의 연장선에서 발달적 독서치료(즉, 치료적 독자상담)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볼 때, 관련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독자상담의 5대 요소는 ① 독서 욕구를 지닌 이용자, ② 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조언자, ③ 이용자의 독서요구와 흥미 그리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 ④ 선정된 독서 자료의 리스트, 그리고 ⑤ 독서 후 토론이다.¹⁹⁾ 다음의 <표 1>은 이러한 5대 요소를 기본으로 삼아 전통적 독자상담 vs. 강화된 독자상담 vs. 치료적 독자상담(즉, 발달적 독서치료) vs. 임상적 독서치료의 차이점을 구체화하여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1> 전통적 독자상담 vs. 강화된 독자상담 vs. 치료적 독자상담 vs. 임상적 독서치료의 차이

	전통적 독자상담	강화된 독자상담	치료적 독자상담	임상적 독서치료
서비스의 목적	독서욕구의 충족	일상 문제의 해결	정서 문제의 해결	심리 질환의 치료
이용자의 요구	픽션류의 추천	일상 문제의 해결	정서 문제의 해결	심리 질환의 치료
면담의 목표/과정	독서요구, 흥미, 이용자 수준 파악(사전) follow-up 면담(사후)	정보요구의 파악(사전) 독서 이후의 인지 변화 파악(사후)	정보요구의 파악(사전) 독서 이후의 정서 변화 파악(사후)	심리 상태의 파악(사전) 독서 이후의 심리 변화의 파악(사후)
사서의 역량	① 픽션류에 대한 지식 ② 독자의 배경/흥미, 흥미 파악 능력	① 상황별 정보원에 대한 지식 ② 독서 과정에서의 인지 변화에 따른 정보 맵핑 능력	① 자가 치유서에 대한 지식 ② 독서 과정에서의 정서 변화에 따른 자료 맵핑 능력	① 자가 치유서에 대한 지식 ② 정신과 전문의와의 협동 능력
독서 자료	특정 장르나 문학작품	문제 이해·해결에 도움을 주는 자료	정서 문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	특정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는 자료
비고	← 사서 주도 ← 자료 중심		전문가의 협력 → 인적 지원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독자상담이과 강화된 독자상담이 도서관 내외의 자료를 매개로 하

19) Anne K. May et al., "A Look at Reader's Advisory Services," *Library Journal*, Vol.125, Issue.15(September 2000), pp.40-43.

여 사서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참고봉사라면, 치료적 독자상담은 자료에 더해 사서와 이용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확장된 형태의 참고봉사이다. 이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표에서 제시한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임상적 독서치료의 경우 위의 <그림 1>에서 나타냈듯이 도서관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심리치료기관 등 임상기관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먼저 서비스의 목적에서 차이를 살펴보자. 전통적, 강화된, 그리고 치료적 독자상담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된다. 전통적 독자상담이 이용자의 특수한 독서욕구, 특히, 픽션류에 대한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화된 독자상담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치료적 독자상담은 일상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때 강화된 독자상담의 경우 ① '일상적 문제 중심'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② 그러한 '문제'에 적합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③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서문제의 해결을 위한 치료적 독자상담은 일정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당면한 문제가 명확할 경우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 할 수가 있으나, 정서문제의 경우 대부분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기보다는 영·유아기부터 성장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내재적 심리 요인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치료적 독자상담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정서문제를 일으키는 현재 상황을 토대로 독서 자료를 선택하여 제공하지만, 그러한 일차 독서활동에 이어 면담과 피드백을 통해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독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서문제를 일으키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시킴으로써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어, 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요구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전통적 독자상담의 경우 여가적 독서를 목적으로 하면서 픽션류에 대한 독서 욕구를 지닌 성인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라면, 강화된 독자상담은 일상에서 부딪치는 제반 문제(가령, 영업직에 새로이 도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혹은 과제를 부여 받았는데 과제의 테마 선정을 위해 유용한 자료는?)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요구를 지닌 성인과 어린이가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치료적 독자상담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정서'와 관계되는 문제(가령,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우울과 불안, 시어머니와의 잦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부의 고민 등)의 해결을 위한 정보요구를 지닌 성인과 어린이가 서비스의 핵심이다. 이때, 전통적 혹은 강화된 독자상담을 원하는 이용자의

20) 한윤옥,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Ⅱ :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 설정 및 분류 체계예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10), p.253.

경우 사서와의 면담과정에서 자신의 정보요구를 비교적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나, 치료적 독자상담이 필요한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앞서 서비스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를 탐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정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면담의 목표와 과정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사서와 이용자와의 면담은 독자상담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 독자상담에서 이용자와의 면담에 응하는 사서는 이용자의 독서흥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과거의 독서경험이나 이력 등을 독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강화된 독자상담에서는 이용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인지 변화를 관찰하고 그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편안하지만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치료적 독자상담에서는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이용자의 인지 변화뿐 아니라 정서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고도의 상담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요인을 독자상담서비스의 초기에는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특정 정서를 인지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음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서비스를 통해 추천하는 독서 자료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 독자상담에 있어서 주요 자료는 특정 장르나 문학작품이다. 즉, 독자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작품성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연결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강화된 독자상담에서는 문학작품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활용된다. 이때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자료의 예술성 보다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치료적 독자상담의 경우는 정서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주로 활용된다. 문학작품과 비문학자료 모두 이용되는데, 문학작품의 경우 예술성 보다는 이용자가 당면한 정서문제와 내용적으로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비문학자료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자기 조력적 자료’²¹⁾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서의 역량에서도 주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관련 학자들은 독자상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다음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꼽는다. ① 독자에 대한 이해, ② 독서하고 싶도록 만드는 능력, ③ 자료의 배경에 대한 지식, ④ 독자와의 상담기술 등.²²⁾

21) 여기서 자기조력도서란 ‘심리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헌 중 특히, 인지적 껍의 보충을 통해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비문학 도서를 의미’한다.
22) 박은자, “독자자문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pp.270-271.

이는 전통적 독자상담은 물론이고 강화된 혹은 치료적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이다. 그러나 독자상담의 내용이 보다 전문적이 될수록(즉, 치료적 상황으로 갈수록) 담당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료에 대한 배경 지식의 경우, 치료적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에게는 정서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정서문제에 관한 자료목록 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목록의 내용만으로는 이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독서경향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료적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관련 자료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직접 읽어 스스로 체험하거나 자료를 이용한 독자들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여 그 효능을 기록하여 축적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듯 일반 참고사서에 비해 치료적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에게는 추가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2. 치료적 독자상담과 '정보요구' 이론

치료적 독자상담은 참고봉사나 독자상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하나로, 서비스 대상이 정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참고봉사나 독자상담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론은 치료적 독자상담의 방법론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참고봉사나 독자상담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해 주는 '정보요구'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치료적 독자상담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치료적' 독자상담에 있어 독서(reading)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 독서를 일상의 정서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보'의 추구하고 이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치료적' 독자상담에서 치료적 효과를 사서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결과이기 보다는 책과 독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²³⁾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Webster 사전의 정의(즉, guidance in the solution of personal problems through directed reading, 즉,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도된 독서로의 안내)²⁴⁾를 따른 것으로,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는 책을 읽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독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책과 독자간의 반응을 통해 정서문제의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정보요구'와 관련된 이론 중 치료적 독자상담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의미형성'이론과 '불확실성 감소'이론이다. 특히 "situation-gap-use" 메타포를 이용한 더빈(Dervin)의 "sense-making model"과 '불확실성'을 토대로 하여 정보탐색 과정에서 인지하

23) 앞서 치료적 독자상담을 '반응적' 독서치료의 유형에 가깝다고 설명한 것과 상통하는 맥락이다.

2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Springfield, M.A., : Merriam, 1996).

정서의 변화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쾰다우(Kuhlthau)의 ISP 모델²⁵⁾이다. 이 두 이론은 정서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지적·행동적·정서적 변화가 독서에 관한 정보의 추구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독서에 관한 정보의 이용이 일상의 정서문제에 대해 어떻게 새로운 ‘의미형성’으로 이어져 극복과 완화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²⁶⁾

그렇다면 더빈의 ‘sense-making model’이 ‘치료적’ 독자상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독서치료의 학제적인 성격으로 인해, 독서치료에 관련된 학문의 특성에 따라 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서치료의 원리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독서가 심리치료 방법 중의 하나로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는 정신분석이론, 게슈탈트 이론, 인지(치료)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지이론(認知理論)은 독서치료에 있어 독서의 과정을 ‘정서문제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독서)정보의 추구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의미형성(sense-making)’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하는 필자의 기본 개념과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인지’란 ‘알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cognosco’에서 파생하여 비교적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외부의 지각, 기억함에 저장된 내용(신념, 가치, 가정, 이론, 철학 등), 외부 혹은 내적 자극의 처리(사고, 평가, 해석, 의미부여 등) 등과 같이 인간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보처리와 관련되는 제반 과정²⁷⁾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인간의 ‘인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지치료이론은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인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²⁸⁾ 즉, 인지치료이론은 인간의 역기능적 사고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즉, 수정, 변화시킴으로써)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없애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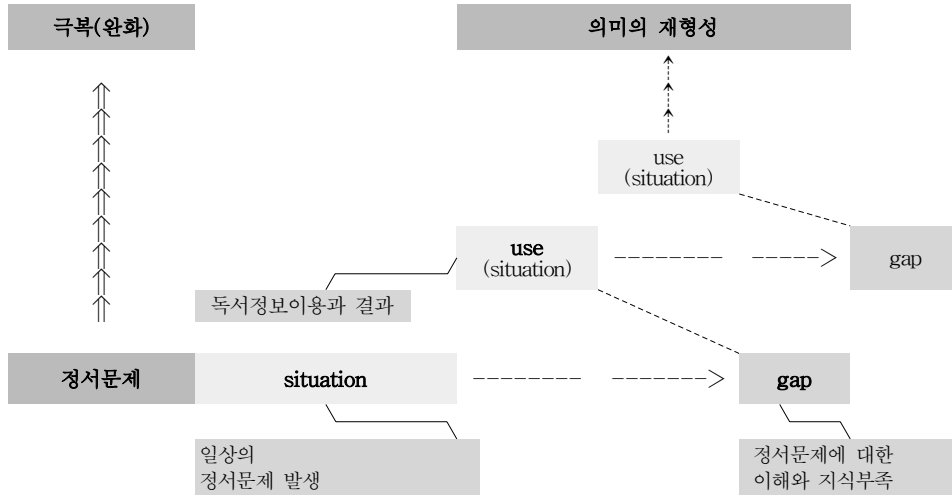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situation-gap-use” 메타포를 ‘치료적’ 독자상담이 요구되는 상황(즉, situation)에 대입시켜보면, 개인이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여 혼란을 겪는 상태를 격차(즉, gap)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정보의 이용(즉, use)을 통해 심리상태에 대한 격차(gap)를 단계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사고를 재구성함으로써(더빈의 표현에 따르자면, 새로운 심리적 인지지도를 구성해 나감으로써) 정서문제의 극복과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개념화하여보면 <그림 2>와 같다.

25) Carol Collier Kuhlthau, “Inside the Search Process :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2, No.5(1991), pp.361-371.

26) Carol Collier Kuhlthau, “Developing a Model of the Library Search Process :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The Library Quarterly*, Vol.28, No.2(Winter 1998), pp.232-242.

27) 이장호, 상담심리학(서울 : 박영사, 2006), pp.80-81.

28) 박경애, 인지·정서·행동치료(서울 : 학지사, 1997), p.11.



〈그림 2〉 ‘치료적’ 독자상담에서의 ‘situation-gap-use’메타포의 적용

한편, 켈다우는 ISP 모델을 통해 정보요구를 발생하게 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정보가 탐색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 상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즉 정보의 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의 <표 2>에 정리한 ISP 모델은 정보탐색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계별 감정(feelings)과 생각(thought), 행동(actions)의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다.²⁹⁾

〈표 2〉 ISP(Information Search Process) 모델

정보탐색과정단계 (stages)	각 단계별 감정 (Feelings)	각 단계별 생각 (Thoughts)	각 단계별 행동 (Actions)
시작(Task initiation)	불확실성	일반적인/모호한	배경정보의 탐색
선택(Topic selection)	낙관		
탐구(Prefocus exploration)	혼란/좌절/의심		적절한 정보의 탐색
공식화(Focus formulation)	명쾌함	좁혀진/더 분명한	
수집(Information collection)	방향감각/자신감	증가된 흥미	적절한 혹은 초점이 맞은 정보
표현(Search Closure)	안심/만족 혹은 실망	더 분명하거나 초점이 맞은	
집필(Starting Writing)	만족 혹은 실망		

의의 <표 2>에 나타나듯이 정보탐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요구를 맞추는 작업을 내면화 한다. 선택단계에서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과제에 관련된 배경정보를 탐색한다. 탐구단계 동안 학생들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인지 상태에서 세분화되고 정리된 상태로 이동하는 데 있어 혼란과 좌절 그리고 의심 등, 선택단계에서보다 무질서한 경험과정을

29) Carol Collier Kuhlthau, *op. cit.*, pp.232-242 & pp.361-371.

겪게 된다. 공식화단계에서 학생들은 명쾌해지면서 ‘갑작스런 통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방향 감각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수집단계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인지상태에서 적절한 정보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이후, 학생들은 그들의 수집된 정보를 표현하면서 탐색은 완료된다. 이와 같이 켄다우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초기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해나 명쾌함의 부족 등을 불확실성이라 표현하면서,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들은 정보추구의 과정에서 해답 자체보다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의미를 찾는다(sense-making) 믿고 있다.³⁰⁾

켄다우의 연구는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성을 두는 디빈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상황-격차-이용이라는 과정이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ISP 모형은 연구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탐색할 때 나타나는 인지적·감성적 변화를 기초로 구축되었고, 사서가 연구자의 정보요구를 확인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과제수행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연구자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면, 단계별 감정이나 행동이 이러한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서를 통해 일상에서 겪는 정서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ISP모형이 연구자라는 특정한 대상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을 기초로 구축된 모형이지만, ‘치료적’ 독자상담에 있어서 개인이 독서의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어떠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 또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정서문제는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특정 감정을 인지하고 그에 의거하여 다음 단계의 독서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인즈와 하인즈베리(Hynes & Hynes-Berry)³¹⁾는 독서치료의 과정을 인식(recognition) 단계, 고찰(examination) 단계, 병치(juxtaposition) 단계, 자기적용(self-application) 단계 등 4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치료과정에서 참여자는 자료를 관심 있게 읽으면서 인식하는 단계, 주제를 살펴보고 주제에 대한 개인적 느낌과 반응 등을 살피는 고찰단계, 고찰 후 좀 더 깊은 수준까지 새로운 감정과 생각들에 비추어 초기 이해수준을 정리하는 병치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느낌을 평가하고 내적 자아로 통찰하고 통합하는 자기적용단계로 마무리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인식은 ‘깨닫지 못했던 느낌(unacknowledged feelings)’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독서치료를 참여자가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애매모호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촉진제로 보고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4단계는 독서치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만,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정서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자기적용이라는 해결에 이르는 동안 단계별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독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0) Carol Collier Kuhlthau, *Seeking Meaning :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 Ablex, 1996), pp.108-127.

31) 한복희, 전계서, pp.194-196.

이와 관련하여 ISP모형은 개인이 독서를 통하여 정서문제의 원인을 인식하는 단계를 거쳐 자기 적용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ISP 모델을 활용하여 치료적 독자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이용자가 독서를 통해 감정과 생각의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예측해 놓은 것이다.

<표 3> 치료적 독자상담의 진행에 따른 정서와 행동의 변화 예측

치료적 독자상담 과정 ³²⁾ (stages)	단계별 감정 (Feelings)	단계별 생각 (Thoughts)	독서치료의 과정 (Hynes & Hynes-berry)
면담시작	불확실성		
독서자료 선택		일반적인/모호한	
적극적 읽기	혼란/좌절/의심	↓	인식단계
정서문제 원인의 공식화 (Focus formulation)	명쾌함	↓	
관련자료 활용 (relative reading material use)	방향감각/자신감	세분화된	고찰/병치
인지의 재구성/변형/유지 (cognition reconstruction/ modification/maintenance)	안심		자기적용
정서문제의 완화/계속	만족 혹은 실망		

컬다우의 ISP 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료적 '독자상담'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서는 서비스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이용자의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적 독자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서는 서비스의 각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용자가 정서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면서 겪는 혼란과 좌절 등의 감정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주지시키고, 나아가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정서문제의 완화와 극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3. 치료적 독자상담에서 사서의 역할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의 역할에 관련하여서는 컬다우(Kuhlthau)가 제시한 참고사서의 역할분류표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컬다우는 ISP 모델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로 참고사서의 역할

32) 치료적 독자 상담업무의 과정은 전통적 독자상담업무의 5요소인 1) 독서요구를 지닌 이용자, 2) 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조연자, 3) 이용자의 독서요구, 독서흥미, 독서 수준에 대한 면담, 4) 선정된 독서자료, 5) 독서 후 토론 (Anne K. May et al., *op. cit.*, pp.40-43)을 '치료적' 독자상담업무에 적용시켜 나타난 것이다. 즉 일상에서 오는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서문제에를 도울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서와 면담을 통해 독서 자료를 선택하여 읽고 그 결과에 대한 면담을 기반으로 단계적 독서활동을 실시하여 정서문제의 완화와 극복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참고자료를 개발하고 조직하는 일(organizer), ② 특정 자료의 위치를 알려 주는 일(locator), ③ 특정 자료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일(identifier), ④ 독자에게 적합한 자료에 대해 조언하는 일(advisor), ⑤ 독자의 배경, 경험, 요구에 기초하여 당면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일 (counselor)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표 4>는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참고사서의 중재영역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 것이다.³³⁾

<표 4> 정보탐색을 위한 사서의 중재역할과 단계별 특징

구분 단계	기초 이론	이용자의 상황	사서의 중재역할: 유형, 수준, 전략	비고 (제한점 및 특징)
1단계: 조직자 (organizer)	서지적	과제에 대한 포괄적 정보 수집을 위해 도서관 장서에 접근	- 장서 접근은 직접적인 인간접촉 없이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짐 - 도서관자료에 대한 탐색도구들, 즉, 각종 표식에서 목록에 이르는 각종 도구의 제공	이용자의 인지적 처리과정에 대한 중재 없음
2단계: 소제과약자 (locator)	페러다임 / 시스템 중심적	과제와 관련하여 이미 알고 있는 단일 정보원의 탐색에 필요한 해답을 구함	- 즉답형 참고질문에 대한 사실 정보 제공 - 질문에 관련된 정보원을 매치	과제의 테마가 모호할 때는 중재 효과가 낮음
3단계: 식별자 (identifier)	확실성에	과제의 테마를 설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테마에 관한 정보 필요	- 특정 순서 없이 일련의 정보제공 - 다양한 테마에 관련된 포괄적 정보의 제공	이용자의 배경과 경험에 대한 고려가 생략되어, 제공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미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4단계: 조언자 (advisor)	기초	일정 기간 관심을 둔 테마를 가지고 있음	- 패턴화된 접근방식으로 특정 정보원의 순서화를 통한 안내 역할 (정보원에 대한 접근도구, 정보원의 이용순서 등을 강조) - 탐색의 표준 경로를 제공하는 경로지시자 (pathfinders)의 역할	정보원의 이용순서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이용자만의 창조적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함
5단계 상담자 (counselor)	불확실성에 기초	이용자 중심적 과제의 테마에 대한 초점이 형성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 자신의 정보요구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	- 정보탐색을 개개인의 역동적이며, 고유한 특성 갖는 창조적, 개인적 구성과정으로 이해: 전체 탐색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강조 - 이용자의 기존 구성 체계를 재구성하도록 주기적으로 면담 - 탐색과정 동안 이용자의 과업에 적합한 탐색 전략을 수립하도록 수시로 조언	- 개별 이용자의 개별 정보탐색에 대한 가이드 역할 - 많은 개별이용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유형을 파악해야함

컬다우에 따르면 이러한 다섯 단계의 역할 중에서 치료적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에게는 반드시 상담자(counselor)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독자의 배경, 경험, 그리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 면담이 없이는 독자가 안고 있는 정서적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 즉, 독서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컬다우는 이 과정에서 사서가 담당해야 하는 중재역할과 관련하여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zones of proximal development)을 참조한 중재영역(zones of intervention)을 제시하고 있다.³⁴⁾ 그녀는 이용자 혹은 독자가 독립적으

33) Carol Collier Kuhlthau, *op. cit.*, pp.128-188.

34) *Ibid.*

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즉, 근접발달영역)에 있을 때 사서와의 심층 면담과 그에 따르는 자문은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서적 요인에 비롯되어 치료적 독자상담이 요구될 때 상담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은 문제해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요구를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초점을 형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답을 취하게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중재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한 기초 정보를 찾는 일조차 혼란스러워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관련 정보를 추구하고 의미(자신의 지식구조)를 재구성하여 과제를 해결해 가는 전체 과정을 혼자서 달성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복잡한 과제일수록 사서의 자문과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즉, 사서는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용자가 봉착해 있는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탐색과 이용 과정에 순차적으로 개입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풀어보면, 정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경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상황에 있기보다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내재적 자아와 심리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⁵⁾ 그러다보니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정서문제를 유발한 현재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에 우선적으로 착수하되, 궁극적으로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심리적 원인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처방을 모색하는 등, 전체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정서문제의 경우, 사서가 단순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당연히 심층적인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켈다우가 중재영역 모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사서의 역할분류는 치료적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일선의 도서관에서 사서가 주도하는 치료적 독자상담을 실시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값진 교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를 처음 실시하는 도서관의 경우 <표 2>에서 제시하는 1단계에서 시작하여 2단계, 3단계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을 채택하곤 한다. 이는 이용자들의 탐색과정이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서 오는 명백한 오류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은 이용자들의 탐색과정은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단계 수준이 가장 먼저 오고 이후 역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다.³⁶⁾ 따라서 정서적 문제에 시

35) 한윤옥, 전계논문, p.253.

36) Carol Collier Kuhlthau, *The Concept of a Zone of Intervention : Identifying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달리면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요구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문제의 해결에 이르도록 하려면, 가장 높은 단계의 중재활동이 정보탐색을 위한 면담의 초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치료적 독자상담에 있어서는 사서가 이용자와 대면하는 초기 단계부터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V. 결 론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치료의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가 책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치료를 사서의 역할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독서치료는 그에 앞서 이용자의 심리나 정서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야 하므로 사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독서를 통한 ‘치료’ 행위는 문헌정보학적 배경만을 가진 ‘사서’가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가령,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한계에 더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도서관의 이미지나 사서의 직업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접근 혹은 도입 방법을 몰라서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도서관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문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리는 특히 우리 학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문헌이나 정보자료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에 의한 독서치료가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를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에서 찾고 있는데, 그러한 지적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사서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서관이용자와의 참고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 하는 서비스를 그토록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었던 말인가? 주지하다시피 사서가 도서관이용자에게 적합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용자의 상황과 내면적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그런데 어찌 사서가 이용자와의 교감을 통해 이어가는 이러한 일련의 정보과정(information process)을 단순한 물리적 행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1996,

<http://www.asis.org/annual-96/ElectronicProceedings/Kuhlthau.html> [cited 2011. 1. 25].

컬다우는 증권분석가와 의사라는 다른 작업환경에 있는 정보이용자들의 인식 속에 있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정보추구과정의 유형을 조사한 후, 그들 모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의 단계’에 대해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특히 보다 복잡한 업무에서 구성적 정보추구의 개념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추구의 과정에서 복잡한 단계가 가장 먼저 진행되며, 이때 이용자들은 정보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위로만 간주하면서 사서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폄하할 수 있단 말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도서관은 사회적 시스템이었다. 특히 사회의 제반 현상을 기록에 담아 보존하고 그러한 기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넘어서 제공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사서는 사회의 제반 현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서관에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하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사서직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서들은 도서관을 찾는 적극적인 이용자 뿐 아니라 도서관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이용자들의 지적 요구를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기초하여 파악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 노력과 실무 경험의 결과가 우리의 학문인 문헌정보학에는 곳곳에 녹아있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논의했던 독자상담은 그러한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이 발휘되는 전형적인 분야로 인간과 자료 그리고 소통(커뮤니케이션)의 의미에 대한 철저한 이해의 토대에서만 가능한 고급 단계의 업무요 서비스인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는 독자상담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일상적인 문제 중에서 심리적 요인이 부각된 정서적인 문제라고 해서 사서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 우리 사서들은 이미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강화된' 독자상담 서비스를 수행해온 경험이 있으며, 그를 위한 실무적 지식을 오랜 세월 축적해 왔다. 이 연구가 비록 강화된 독자상담과 치료적 독자상담의 물리적 고리를 찾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향후 연구는 이들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후속 연구는 특히 도서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문헌정보학의 기존 이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폭넓고 세심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발달적 독서치료를 치료적 독자상담으로 치환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이제환. "한국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 (2009. 12), pp.5-29.
- 한윤옥.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Ⅱ :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 설정 및 분류체계예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10), pp.249-275.
- Doll, Beth and Doll, Caro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 Librarian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97.
- Kuhlthau, Carol Collier. "Inside the Search Process :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2, No.5 (Jun. 1991), pp.361-371.

- Kuhlthau, Carol Collier.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9, No.4(1993), pp.339-355.
- Kuhlthau, Carol Collier. *The Concept of a Zone of Intervention : Identifying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1996.
<<http://www.asis.org./annual-96/ElectronicProceedings/Kuhlthau.html>>
[cited 2011. 1. 25].
- Kuhlthau, Carol Collier. "Developing a Model of the Library Search Process :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RQ*, Vol.28, No.2(Winter 1988), pp.232-242.
- Kuhlthau, Carol Collier. *Seeking Meaning :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2nd ed.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3.
- Lu, Ya-Ling. How children's Librarians help children cope with Daily Life : An Enhanced Readers' Advisory Service. Ph. 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5.
- May, Anne K. et al. "A Look at Reader's Advisory Services." *Library Journal*, Vol.125, No.15 (Sep. 2000), pp.40-43.
- Sturm, Brian W..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 Helping or Healing?"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 Library Sciences*, Vol.41, No.2(Dec. 2003), pp.171-179.
- Trott, Barry. "Building on a Firm Foundation : Readers' Advisory Over the Next Twenty-Five Year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8, No.2(Spring 2009), pp.132-135.
- Trott, Barry and Van Fleet, Connie.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Program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3(2008), pp.224-229.
- Wang, Ching-Huang. Self-Guided Bibliotherapeutic Experiences Related to Identity Issues : Case Studies of Graduate Students in American University Settings." Ph. D. in the Department of Language Education, University of Indiana, 2002.